



천주교 롱 아일랜드 한인성당

The Korean Apostolate at Holy Name of Jesus Church

2020년 9월 27일	연중 제26주일(한가위)	제 2116호
성당 안내	미사 안내	성사 및 교리
* 주임 신부: 이재원(다미안) Rev. Jae Won Lee (Damian) 516-728-2770 * 평협 회장: 이명훈(벨라도) 917-349-3473 * 사무실 516-921-3333	주일미사 : 토 오후 8시 (저녁주일미사) 일 교중미사 낮 12시 평일미사 : 수 오전 11시 목 오후 8시30분 성모신심미사 : 매달 첫째 토 오전 10시 (미사 후 성시간)	예비자교리 : 고해 성사 : 미사 20분 전 유아 세례 : 희망일(사전 접수) 병자 성사 : 위급하기 전 연락요망 혼인 성사 : 6개월전 상담

입당송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 1 독서	요엘 예언서 2,22-24.26ㄱㄴㄷ	제 2 독서	요한 묵시록 14,13-16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12,15-21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전례 봉사자 (9/27)	미사해설	1,2 독서	기도
토 8:00 pm	조 영 희	문 채 영	해 설 자
주일 12:00 pm	김 성 섭	이 재 만	해 설 자

전례 봉사자 (10/4)	미사해설	1,2 독서	기도
토 8:00 pm	김 성 섭	이 창 준	해 설 자
주일 12:00 pm	류 정 아	김 정 헌	해 설 자

본당 소식

◆ 한가위(추석) 위령미사 안내

오늘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10/01)를 맞이하여 하느님께 감사하며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과 부모, 형제, 친척과 은인들, 불쌍한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는 **위령미사**로 봉헌합니다.

◆ 성모신심미사

일시 : 10월 03일(토) 오전 10시
 첫 토요일 미사 후에 성시간(Holy hour) 있음.

◆ 2020-2021년도 주보 광고 신청 및 갱신 안내

2020년도 9월~2021년도 8월까지 주보 광고주를 모집하오니 광고주께서는 9월 말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년분 주보 광고 신청비 \$250

◆ 2021년 본당 달력 광고주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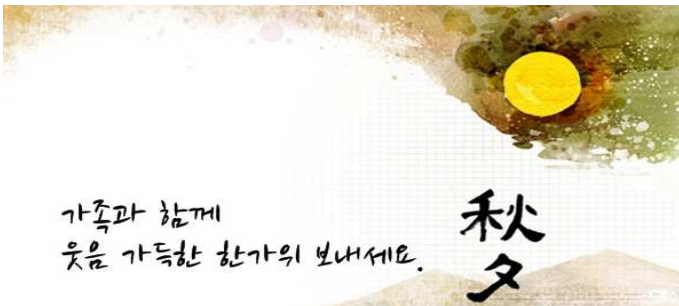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마감 10월 10일)
 문의 : 사무실

◆ 봉성체 안내

대상 : 몸이 불편하셔서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본당교우분
 신청 : 본당 사무실(연락처, 위치)

+ 선종 : 고 김광길 (바오로 80세)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례미사 : 9월 30일 (수) 오전 11시



오늘의 말씀

30대 초반 : 하느님 말씀의 맛을 이미 경험했지만 그것을 나에게 맞게 적용하지 못해서 아직도 힘이 드는 게 현실이에요. 척박한 나의 삶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기엔 나 자신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서, 내 등 뒤에 계시는 주님께 그냥 기대야겠어요, 내 생각과 힘을 빼고..

30대 중반 : 저도 늘 하는 고민입니다. 영적 결핍보다 당장의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다 조화로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여유로운 자만의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도 영적 목마름이 있는 이들을 위해 변화를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사목위원 :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일 미사만이라도 꼭 참석하려는 모습에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연상됩니다. 지금의 힘든 고비만 잘 넘기면 주님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녀님 : 척박한 삶 안에 지친 마음, 이조차 외면했을 청년의 마음! 그 아래의 영적 갈망, 위로받고 도움받고 싶은 외침이 들려오네요. 그 마음을 보듬어, 오늘 청년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이 순간 기도로 함께한다는 사실이 힘이 되길!!!

신부님 : 교회를 너무 타자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

‘성당이 밥 먹여주나요?’

문지운 피앗 / 지내성당

내가 다니는 회사는 업무 특성상 명절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휴일을 포함해 거의 1년 내내 출근한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일을 처리해야하는 밀도 높은 근무 환경은 삶을 점점 단순하게 만들었고, 가까운 친구들과조차 누군가의 경조사에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일이 고된 만큼 영적으로는 메말라 갔고 채움에 대한 갈망은 커졌기에, 선택주말 참여 후 용기를 내어 오랜 냉담을 풀고 한 청년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퇴근이 늦어 늘 지각하거나 불참하기 일쑤였는데, 2주에 한 번 있는 모임과 당장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회사 중 나는 늘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며 역시 내게 공동체 참여는 과분한 것임을 실감하고 크게 좌절했다. 하지만 신앙은 선택이지만 돈을 벌려면 직업은 필수인 매서운 현실 속에서 최소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 나는 결국 영적 결핍보다 부족한 경제력과 모자란 잠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1박 2일 피정에 참여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까지 설치 종내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 느낌을 마지막 나눔 때 솔직히 말했다.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말씀과 기도가 모두 나를 통과하는 것을 느끼며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선명히 알게 됐다고. 이때부터 눈물이 나더니 이어서 마침 성가로 ‘임마누엘’을 함께 불렀을 땐 악보를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 처음으로 가사가 내게 닿으며 나 자신마저 외면해 온 괴로움을 마주했던 순간이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이

그 후, 쏟아낸 눈물만큼 많은 위로를 받았고, 더 나은 삶에 대해 고민하다 만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는 말씀은 그날의 성가와 함께 ‘겨자씨’가 되어 내 마음에 심겼다.

하지만 이 씨앗은 척박한 내 삶에 스스로 뿌리 내리기엔 작고 연약하다. 씨앗이 싹트려면 교회의 도움이 분명 필요하지만, 여전히 나의 생활은 일의 비중이 높아 그나마 꾸준히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주일미사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에 딱히 교회에 바라는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의향이 있다면 묻고 싶다. “교회는 ‘이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20대 초반 : 현실에 매여 주님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이 주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힘든 시기에 있는 청년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20대 중반 : 글 읽는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자매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2면으로)

지난주 우리의 정성	20시(토)	12시	교무금	감사헌금	주보 광고	본당발전기금	합계
연중 제24주일(9/13)	\$305.00	\$820.00	\$2,280.00	\$100.00	\$500.00	\$1,000.00	\$5,005.00
미사 참례자	20명	73명	※	※	※	※	93명
교무금 내신 분	최기완(9-11) 이승혁(8-9) 이흥철(8-9) 정초행(5-10) 최기석(1-12) 김선경(7-9) 감사헌금 : 익명						

<p>에인 한의원 안국산 안약재 처방 공진단 경옥고 우지섭 다미아노 Tel.718-539-5161 142-36 38 Ave. #1313 Flushing, NY11358</p>	<p>조재민(바오로) 교정치과 1991 Marcus Ave. Suite 106 New Hyde Park, NY 11042 Tel (516-775-9393) 32-06 Bell Blvd. Bayside Tel (718-229-9010) WWW.NHPORTHO.COM</p>	<p>지운선 필라테스! 바른 자세 교정 체형 교정 깨알 운동 산전,우 관리 운동 Tel. 718-309-4191 지운선 도미니카</p>	<p>왕금어장잇집 GOLDEN SUSHI (구 파도잇집) 173-53 46th Ave. Flushing, NY11358 Tel. 718-321-3047</p>
<p> 자동차, 주택, 생명보험 248-25 Northern Blvd. Suite 2G Little Neck, NY 11362 718 - 631-1200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토니 윤 (세바스찬)</p>	<p>배근일 내과 (일반 내과 전문의) 718-358-3151 154-08 Northern Blvd. 2 Fl. Flushing, NY 11354</p>	<p>켈리강 보험 & 사회복지서비스 오바마 케어 / 에센셜 플랜 어린이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 노인 사회 복지 서비스 생활 상담, 등등 Kelly Kang 917.797.0718</p>	<p>메디케어 시니어 플랜 전문 메디케어 추가혜택 가입, 변경 무료상담 썬니 립 Tel : 718-359-2244 516-922-7487 E-mail: sunnieklm@gmail.com</p>
<p>Comfort Your Sole  당뇨, 건강신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받음 546 Commack Road Deer Park, NY 11729 (631) 242-4000</p>	<p>입시전문학원 BNB 아카데미 SAT, ACT, PSAT 5년 연속 SAT 만점자 배출 All level-subjects Tutor Special (Office) 631.858.2622 WWW.BNBACADEMY.COM</p>	<p>* 다께 횃집 * 한국식 횃집, 한식 전문 파티 음식 주문 가능 742 Old Bethpage Rd. Old Bethpage, NY 11804 516.293.1559</p>	<p>가정문제 연구소 (창립 1973년) 가정문제상담(부부, 개인, 가족) 가정법, 이민법 516-605-2605 소장 레지나 김 (무료)</p>
<p>* 북창동 순두부 베이사이드 지점 * 각종 모임 및 경조사 대접 70석 단체 룸 완비 가격 만족! 서비스 만족! 220-0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Tel : 718.224.8889</p>	<p>RedCap Interiors 건물,주택 유지보수 주방,욕실 리모델링 캐비닛,책장 주문제작 Tel.646-206-8728 주연오 아오스딩</p>	<p>순 한국식 중화요리 년 짜장 난 짬뽕 연회석 완비 Mon ~ Sun 11 am ~ 10 pm TEL : 718-225-1210 210-07 Northern Blvd. Bayside</p>	

오늘의 미사 지향

	연미사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봉헌자	생미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봉헌자
20:00	남상진 바오로	최민정 레지나 조유순 마리아 말따 전례부	김유스티나, 김다미아노, 김고스마	최민정 레지나
12:00				